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5월 1일(주일) 제1097호

가정의 달 5월

나누는 교회 행복한 가정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스승의 날 기념행사 풍성 대학청년부는 이웃 찾아가는 '일일 아웃리치' 실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교회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행사들이다.

어린이주일인 오늘(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는 파워키즈(초등학생 위팀)와 예꿈뮤지컬팀이 예배 특수를 한다. 양재에서는 유치부와 유년 2부가 특수를 한다. 부천 온누리교회는 교회 주차장에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평택은 유초등부가 야외예배를 드린다. 인천은 유초등부 미니올림픽을 개최한다. 강동은 '하나님의 과학이야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중고등부는 학부모 초청 예배를 드린다. 양지는 '어린이이처럼'을 주제로 마술쇼와 게임, 먹거리 잔치가 펼쳐진다.

어버이주일인 다음 주일(8일)에는

서빙고, 양재, 남양주, 수원, 강동, 양지 온누리교회 예배에 참석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 드린다. 부천은 가족통합예배를 드리고, 대전은 27일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나들이를 갈 예정이다. 남양주는 어르신들께 인사하기 캠페인을 벌인다. 강동은 12일에 시니어 아카데미 봄소풍을 간다.

스승의 날인 15일에는 차세대 교사를 격려하는 행사가 열린다. 서빙고, 양재, 대전, 도곡에서 교사들에게 서점과 카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남양주 중고등부는 유초등부 일일 보조교사로 섬긴다.

대학청년부는 이웃들을 찾아가는 쪽방촌,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탈북민,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일일 아웃리치를 실시한다.

리치를 실시한다.

여호수아공동체는 천사의 집 장애인들과 함께 14일 일산테마공원으로 봄소풍을 가고, 28일에는 명진들 꽃사랑미를 보육원생들과 직업체험과 저녁식사를 한다. 같은 날 남대문 5가 쪽방촌사역팀은 주민들을 펜션으로 초청해 1박2일 캠프를 한다.

요셉공동체는 오늘(1일) 서울대병원교회에서 인형극 공연을 하고, 15일에는 라파의 집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남산으로 소풍을 간다.

W공동체는 14일 탈북자들과 함께 서울 나들이를 하고, 남양주 진중교회도 섬길 계획이다. SNS공동체는 3일 탈북민 가정을 초청해 식사대접을 하고, 14일에는 수서명화복지관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약정행사 결과

3천 10명 참여, 8억4천6백만 원 약정

지난 주 실시된 NGO 더멋진세상 후원 약정행사에 성도 3,010명이 참여해 8억4천6백만 원을 약정했다. NGO 더멋진세상 측은 "경기가 어려운 시점인데도 많은 성도들이 후원 약정행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성도들이 귀하게 모아 준 후원금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지역 등에서 더멋진세상을 조성사업, 농업사업, 의료 및 보건사업, 교육사업(어린이, 여성), 긴급·난민구호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2010년 설립된 NGO 더멋진세상은 선교와 NGO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다. '그 이름의 능력을, 그 이름의 사랑을'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번 후원 약정행사에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언제든지 NGO 더멋진세상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

문의: 02-2271-2248

/ 김현준 기자

전도사역본부, 맞춤전도집회 실시

5월 첫 주 순맞춤전도집회, 23일 행복드림 콘서트

전도사역본부가 맞춤전도집회를 실시한다. 5월 첫 주부터 순맞춤전도집회가 시작되고, 23일에는 65세 이상 부모님 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가 막 오른다.

순맞춤전도집회는 5월 첫 주부터 시작된다. 성인공동체 각 순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순맞춤전도집회를 진행한다. 순맞춤전도집회는 순원의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지인 등을 초대해 교제하고, 전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는 "순이 진정한 생명력을 가지려면 순원들이 함께 전도해야 한다"면서 "순맞춤전도집회를 통해 순모임이 전도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5월 23일에는 65세 이상 믿지 않는 부모 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나의 부모님께 소중한 행복을 드립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행복드림 콘서트에 대한 기대가 벌써부터 고조되고 있다. 참가신청은 주일통합데스크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하면

5월 23일 (월) 오후 6시

65세 이상 부모님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나의 부모님께 소중한 행복을 드립니다.



된다. 평일에는 목회행정실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번 행복드림 콘서트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개그맨 이흥렬, 이성미, 방송인 오미희, 가수 이무송, 노사연, 샌드애니메이션 박진아 작가, 국악찬양팀 가야람이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 시작된 65세 이상 부모님 초청 맞춤전도집회는 결신율이 2013년 75%, 2014년 81%, 2015년 90%로 매우 높다.

문의: 02-3215-3214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양육과 중보기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이주민 섬기는 임마누엘선교회 변용성, 윤병희 선교사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온누리교회

본지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역, 기독교 기관 및 단체, 이웃들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열세 번째 주인공은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임마누엘선교회’다. 지난 24일 노원공동체와 함께 경기도 양주에 있는 임마누엘선교회를 다녀왔다.



▲ 루안과 황영옥 장로(노원공동체).

▲ 임마누엘선교회를 섬기는 변용성, 윤병희 선교사 부부.

이주민들을 섬기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성경 가르침에 순종하는 동시에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 이주민은 제발로 찾아 온 복명이다. 현재 약 200개국에서 온 외국인 이주민 180만 명이 한국에서 살고 있다.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170개국보다 30개국이나 많다. 이주민 선교는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이주민 선교가 그만큼 중요한데 아직도 이주민 선교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드물다. 이주민 선교에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은 동역자의 부재, 운영의 어려움, 한국교회의 외면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래도 이주민 선교를 포기할 순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여념이 없는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임마누엘선교회도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 여념이 없다. 임마누엘선교회는 변용성, 윤병희 부부선교사가 섬기고 있다.

황영옥 장로가 루안에게 준 최고의 선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노원공동체와 함께 경기도 양주시 화정동에 있는 임마누엘선교회에 도착하자 윤병희 선교사의 설교가 한창이었다. 윤병희 선교사 옆에서 한국생활 8년차에 접어든 누아르 형제가 설교를 통역하고 있었다. 예배드리고 있는 이주민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들에게는 주일이 가장 즐거운 날이다.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고향 음식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런데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민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섬기고 있는 봉사자들의 낯이 익다. 반가운 얼굴도 보였다. 노원공동체 지체들이다. 노원공동체는 한 달에 한 번씩 임마누엘선교회를 방문해 스리랑카 이주민들과 교제하고 있다. 예배, 한국문화, 한글공부, 성경공부 등을 섬기고 있다. 노원공동체 성도들과 교제하다 하나님을 만난 청년도 있다. 그 주인공은 루안이다.

루안은 한국에 온지 5년 됐다. 대부분의 외국인 이주민들처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한국에 왔다. 스리랑카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한화로 30만원을 넘지 못하지만 한국에서는 최저임금만 받아도 그 월급보다 훨씬 많다. 그렇다고 한국생활이 윤택한 것은 아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가족들이 그리웠거든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방황이 시작됐다. 힘들 때마다 유흥을 찾았다. 밤마다 유흥가를 배회했다. 2년을 그렇게 살았다. 착하고 순하기만 하던 루안이 어느새 망가지기 시작했다. 한국생활이 너무 힘들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루안의 마음이 병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인 외삼촌의 조언이 생각났다.

“마음이 어려울 때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 봐.”

친구를 따라 임마누엘선교회를 찾아갔다. 주일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했다. 2014년, 루안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발생했다. 노원공동체 황영옥 장로를 만난 것이다. 황 장로는 루안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하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챘다.

“루안, 요한복음 3장 16절, 14장 6절을 암송하면 내가 최고의 선물을 줄게.”

황 장로는 루안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썼다. 선물을 준다고 유혹도 하고, 한국어가 어려우면 영어로 말씀을 알려줬다. 루안을 위한 중보기도도 멈추지 않았다. 황 장로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루안이 성경책을 보고,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몸이 아플 때보다 마음이 아플 때가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거짓말처럼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꿀 같았다. 그만큼 달콤했다.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유흥을 즐기던 루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기 시작했다. 황 장로가 루안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

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한 것이 다요 3:16”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번 달에 스리랑카로 돌아갑니다.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꼭 알려줄 거예요.”

그것이 루안의 소망이다.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꿈꾸고 있다. 황 장로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루안에게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스리랑카에서도 말씀 외우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해!”

변용성, 윤병희 선교사 부부이야기

임마누엘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변용성, 윤병희 선교사 부부는 스리랑카인 전문사역자다. 변용성 선교사는 양주에서 자랐고, 아내 윤병희 선교사는 수원에서 자랐다. 결혼하고 경기도 양주에 터를 잡았는데 외국인 이주민들이 정말 많았다. 고개만 돌리면 외국인 이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당장 평신도 사역을 시작했다. 외국인 이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당시 다니던 동두천성결교회로 초대했다. 10여 년 동안 정말 많은 외국인들을 전도하고 섬겼다. 그들 부부의 집은 이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다름없었다. 지극정성으로 이주민들을 섬기다 보니 찾아오는 외국인 이주민들이 교회에 오다보니 그것을 불편해하는 성도들이 생겼다. 외국인들을 양육하는 전임 목회자도 없었기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모인 외국인들이 다 투기도 했다.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목회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아내와 함께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주간에는 일을 하고, 야간에는 신학교를 다녔다. 신학교가 의정부에 있었는데 경기도 양주에서 의정부로 가는 길에 임마누엘선교회가 보였다. 임마누엘선교회를 볼 때 마다 ‘저기는 어떤 선교를 할까?’ 라고 궁금해 했다. 하나님께서 부부의 마음을 아시고 임마누엘선교회에서 사역할 기회를 주셨다.

어느 날 윤병희 선교사가 의정부에서 한 외

국인 자매와 마주쳤다. 외국인 이주민을 보면 복음을 전하던 윤 선교사였기에 그날도 어김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나 교회 다녀요. 우리 목사님처럼 통화해보세요”라며 휴대폰을 꺼내 연결해줬다. 수화기 너머 주인공이 당시 임마누엘선교회를 운영하던 박향순 목사였다. 박향순 목사는 그들 부부를 임마누엘선교회 예배에 초대했다. 그날 이후에는 왕래가 없었다.

2010년 신학교 졸업을 앞둔 부부에게 갑자기 박향순 목사가 제안을 했다.

“이곳에서 사역을 해보시겠어요?”

당시 이슬람 사역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선교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다. 평신도시절부터 이주민 사역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외국인 이주민들과도 금방 친해졌다. 부부는 가정예배와 심방에 집중했다. 외국인 이주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교회가 없어도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지난해부터는 기간을 정해 스리랑카 전역을 돌며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

외국인 이주민들이 스스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육과 중보기도가 중요하다. 심방은 부부가 할 수 있지만 양육과 중보기도는 동역자가 없으면 힘들다. 온누리교회가 임마누엘선교회의 양육과 중보기도 동역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주일에 임마누엘선교회를 찾아가 함께 예배드리고, 외국인 이주민 양육에 힘을 보태자. 우리가 양육한 외국인 이주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이다. 임마누엘선교회뿐만이 아니다. 외국인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이 외롭게 선교하고 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스리랑카로 단기선교를 가는 공동체가 있다면 임마누엘선교회와 협력해도 좋다.

문의:윤병희 선교사(임마누엘선교회)

010-9205-9180

김준연 집사(노원공동체)

010-3867-7377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나다

사도행전 19:23~34

“에베소에서 일어난 영적소동이 한국사회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함으로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에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건 “교회가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 교회인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들 간에 친밀함은 있는데 사회에 영향력이 없다면 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에 의해 교회가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보겠다고 세상 권력싸움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역사는 교회가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 명예로운 결실을 맺은 적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회가 본질과 사역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이 교회역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세상의 권력을 주겠다고 유혹했을 때 그것을 뿌리치셨습니다. 그 모습은 모든 교회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이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의 선통

에베소에서 복음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일어난 소동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큰 연극장에 시민들이 모여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약 2만5천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연극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동행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드’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 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다” (32절).

일부 사람들은 왜 모였는지를 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모였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군중심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4절에 그 이유가 상

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충동 질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다산과 풍요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던 ‘아데미 여신’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와 로마제국을 휩쓸었던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집에다 모셔놓거나 부적처럼 가지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우상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여신 모형을 만드는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 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소리 높였습니다”(25~28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대중 선동가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이 소동의 배후인물입니다. 그가 소동을 일으킨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명분을 내세워 실제 명분을 숨김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는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야만 존재하는 신,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거나 그림을 붙여놓고, 장식을 함으로 신이라 불리는 것은 신이 아니라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숭배하던 아데미 여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왔습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다면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던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줄 정도였습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소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바는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다.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존엄과 위엄이 추락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다른 명분을 내세워 실제 명분을 숨긴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당시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크기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네 배나 더 컸습니다. 19m나 되는 대리석 기둥이 127개나 되고, 길이가 115m, 폭이 55m로 당시 건축물로는 불가사의할 정도의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를 방문해 아데미 신전을 구경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관광수입이 생겼습니다. 아데미 여신 숭배를 전파하는 본산지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던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입니다. 그 사람이 선동해서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진리로 우상을 떠나도록

사람들이 왜 분노했습니까. 자신들이 숭배하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과 명예를 실추된다는 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동을 일으킨 진짜 이유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든 것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동이 도시 전체에서 일어날 정도로 사회적 파급이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치적으로 아데미 신전을 반대하는 충동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아데미 신전을 파괴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는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우상으로부터 떠나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파급효과가 경제적인 타격을 입힐 정도로 컸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불의한 경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정치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대응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전하는 진리 앞에서 사람들이 우상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악에 기생해 번창했던 사업들이 줄어들고, 선한 사업들이 흥하게 되는 사회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이 증거될 때 사회의 구

조적인 악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의 능력보다 크다는 것을 믿고 이런 소동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일으킨 건강한 소동

에베소에서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으킨 소동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들이 일으킨 건강한 소동입니다. 당시 마술을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의 증거로 자신들이 갖고 있던 마술책을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 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 있게 퍼져 나갔습니다”(행 19:17-20).

당시 에베소는 마술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이 시대는 마술을 눈속임 정도로 생각하지만, 당시 마술은 의식뿐만 아니라 주문을 외우고, 저주를 하는 우상숭배의 한 형태였습니다. 수많은 마술가들이 존재했습니다. 어느 저명한 신화학자의 책을 보니까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서 에베소에 대해 언급한 대사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도시가 사기로 들끓고 있다고 말들을 하지. 눈을 속이는 만첩한 마술사들, 사람들의 마음을 갖고 노는 음흉한 마술사들, 몸을 망치게 하고 영혼을 죽이는 마녀들, 교묘히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들, 인심 쫓겨 떠들어대는 험잡꾼들, 그 외 수많은 죄악들이 활개 치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앞장서서 이러한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자신들이 사용하던 마술책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모아서 불태운 책들의 가치가 5만 드라크마라고 하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면 5만 명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사람이 139년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던 마술책을 모아 불태우는 이 놀라운 변화가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13편에 계속〉

기획_이주 노동자와 다문화가정

300만 이주민 시대 향한 선교적 부르심!

언어, 임금체불, 여성인권 등 이주 노동자들의 눈물 교회가 닦아줘야

오늘(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에 온 이주 노동자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이 꾸린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파악했다. 또한 타국에서 외롭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과 차별과 편견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섬기고 있는 온누리M센터, 사회 선교부를 조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봤다.

/편집자 주



이경희 목사
(온누리M미션
외국인유학생사역담당)

2016년 2월 말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20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온 1,856,656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전년 대비 3.9% 증가한 수치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3.7%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인구 1천 명 당 37명이 외국인이라는 의미다. 국적별로는 중국 946,895명(51%), 미국 139,868명(7.5%), 베트남 134,048명(7.2%), 태국 88,845명(4.8%), 필리핀 53,598명(2.9%), 우즈베키스탄 48,525명(2.6%), 인도네시아 44,433명(2.4%) 순이었다. 남자가 1,027,676명(55.3%)으로 여자 828,980명(44.7%)보다 많았다.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주민, 단기체류자 등을 제외한 취업자격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체류외국인은 615,131명이다. 교수, 회화지도, 연구 등 전문인력은 49,699명이고, 제조업과 농업 등에서 일하는 단순기능 인력은 565,432명이다. 앞으로 이주민 노동자 수는 한국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구조, 3D 업종 기피현상 등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언어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이 많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한 형제가 일을 하다 손가락을 다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손가락 수술 후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강도로 운동을 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통역사를 통해 의사의 말을 듣기는 했지만, 러시아어를 조금 할 줄 아는 몽골인이 통역을 했으니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당연했다. 결국 그 형제는 수술을 7번이나 받았다.

언어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벌어진다. 얼마 전 스리랑카에서



지난해 8월, 안산 대부도에서 열린 온누리M센터 세례식.

온 한 형제가 회사에서 한국사람과 불미스러운 일로 치아가 부러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그 일로 재판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다. 검사나 변호사가 뭐라고 하는지,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몰라 답답해 했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언어문제에서 발생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고충이다.

임금체불도 심각하다. 고용노동부 보고에 의하면 2015년 8월 기준으로 이주민 노동자 임금체불액은 301억 5천만 원이었다. 임금체불을 당한 이주민 노동자가 9,790명이나 됐다. 물론 한국인 노동자에게도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만 타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가 경기도 내 이주여성 3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 경기도 이주여성 직장 내 성희롱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성폭행을 당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57명(15.2%), 성폭행 위기에서 벗어난 여성이 60명(16%)이나 됐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언어가 안 통해서, 도움 줄 대상을 몰라서, 창피하고 비난을 받을까봐, 직장을 잃거나 가해자 보복이 두려워서 등이었다. 이주여성 근로자들의 성폭력이나 성희롱 방지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을 보완하고, 모국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피해자를 도와 줄 수 있는 전문 인력 지원 등의 제도를 만들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브라함, 요셉, 예수님도 이주 노동자

구약에 대표적인 이주민이 나온다. 아브라함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 12:1)고 말씀하셨을 때 지체 없이 떠났다. 가나안이라는 낯선 곳으로 이주해 노동을 하고, 양을 치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주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주민 아브라함을 후대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 요셉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일해야 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주 노동자 요셉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노동을 통해 애굽의 기근과 어려움을 잘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도 먹여 살릴 수 있었다.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모범적인 이주민의 삶을 보여주는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성육신을 통하여 이주하신 분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땅에서의 복음사역은 예수님의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노동의 시간이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주민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며,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분향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이주민으로 살면서 예수님이 바로 보여줄 책임과 특권이 있다.

교회가 이주민을 도와야 한다

이주 노동자는 찾아오는 선교지다. 그것이 교회가 발 벗고 나서서 그들을 도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첫째, 교회는 이주 노동자들을 선교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 땅에 들어와 있는 200개 국가의 이주 노동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선교자원이 될 수 있다. 종족으로 따지면 수백, 수천 명의 선교사 파송이

가능한 것이다. 그들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그들의 고국으로 역파송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역기관, 예산 등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편성하고, 사역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다(마 28:19). 교회와 성도들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실한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어 고국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교회는 이주 노동자들을 제도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주 노동자들은 언어, 노동, 법, 의료, 성폭력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어야 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상담자들의 정기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 현지어가 가능한 선교사나 은퇴 선교사들이 이주 노동자들의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고, 통역도 해주면 좋겠다. 이주민 선교사역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선교사나 사역자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을 돕고 선교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각 공동체에서 이주민사역을 위해 1년 단위로 2명씩 자원봉사자를 파송해서 순차적으로 섬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온누리교회의 이주민사역

온누리교회는 이주 노동자를 섬기는 사역에 앞장서 왔다. 온누리교회 이주민사역은 1994년 11월 성수동 기도모임에서 시작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누리교회 이주민사역을 5기로 나눌 수 있다. 1기(1994~96년)는 긍휼사역 중심, 2기(1996~98년)는 예배개척 중심, 3기(1998~2005년)는 예배개척과 제자양육 중심, 4기(2006~2015년)는 제자훈련과 역파송 중심, 5기(2016년~현재)는 100개 나라 예배개척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까지 온누리M미션을 통해 25개국 443명이 세례를 받았다. 온누리M미션 출신 선교사가 12개국 26명에 달하고 있다. 올해는 이슬람 이주민 선교의 교두보를 만들고, 확장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예배 개척, 우즈베키스탄예배 개척, 파키스탄예배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사역을 활성화시키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섬기는 사역도 준비하고 있다. 이주민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온누리M미션은 이주민 선교가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소명이라고 믿는다. 2020년 300만 이주민 시대를 준비하는 선교적 부르심이 분명하다.

하늘나라 백성은 이민자처럼, 이방인처럼

다문화가정 차별하지 말고 기능하도록 지원해야

2006년 NFL(미국프로미식축구) 슈퍼볼 최우수선수상을 거머쥔 하인스 워드, 이주민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 이자스민, 유명 가수 인순이, KBS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추사랑의 공통점이 있다. 국적도, 나이도, 직업도 다 다른 이들의 공통점은 다문화가정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세계는 하나의 마을, 즉 지구촌이 됐다. 외국인들을 보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다. 늘어난 외국인만큼 다문화가정도 늘고 있다.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사회문제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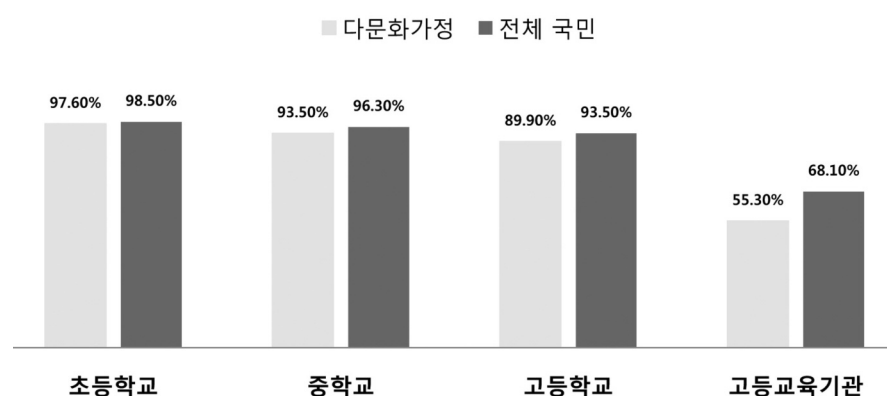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을 의미하는 말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다문화가족은 278,036가구로 2012년 조사에 비해 4.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전체 가구 중 1.3%를 차지하는 수치다. 100가구 중 1가구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소리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만 9~24세)들도 증가했다. 2015년 82,476명으로, 2012년 66,536명에 비해 24%나 증가했다.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의 수만큼 사회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에서 전남편이 베트남 출신 전처와 친딸(6세)을 살해하고 본인도 목을 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가정폭력으로 2013년 이혼한 이들 부부는 면접교섭권을 요구하는 전남편에게 아이를 만나게 했다가 끔찍한 변을 당했다. 비단 이뿐만 아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베트남 아내’를 치면 연관검색어로 가출, 살해, 질투, 혐의이혼, 방화, 이혼방법 등 부정적인 단어 일색이다.

언어적인 어려움, 문화적 갈등, 편견과 차별, 사회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다문화가정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 실제로 그들은 한국생활의 주된 어려움으로 언어문제(34.0%), 외로움(33.6%), 경제적 어려움(33.3%), 자녀교육문제(23.2%)를 꼽았다(복수응답).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취학률이 전체 국민의 취학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커져 고등학교 3.6%, 고등교육기관 14.8%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참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 중단 사유를 보면 학교생활 및 문화가 달라서가 18.3%, 학교공부가 어려워서가 18%, 편입학 및 유학준비가 15.3%, 돈을 벌어야 해서가 14.4%, 그냥 다니기 싫어서가 11.1%, 학교 다닐 형편이 안 되

다문화가정 자녀와 전체 국민의 취학을 비교



출처 : 여성가족부, 2015 전국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기 때문이 8.6% 순이었다.

성경에 나타난 이주민과 다문화가정

다른 곳으로의 이주는 다문화사회의 변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사건이다. 성경에는 이주와 다문화 이야기가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류는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며 이뤄진 역사이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창 4:23),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방인으로서 떠돌아야 했다(창 12:1). 아람 집안의 이집트 이주, 출애굽, 가나안 땅 정착, 바벨론 유배와 귀환 등 구약의 중요사건이 모두 이주와 관련이 있다. 예수님도 이주민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태어나자마자 살해 위협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을 갔으며, 공생애 기간동안 이주생활을 체험하였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을 떠도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 역시 다문화가정이다. 디모데의 모친 유니게는 그리스인 남편을 둔 다문화가정 여성이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이 되어 유랑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 대해 매우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과정에서(창 24장) 본토로 돌아가서 배우자를 찾으라고 노종에게 부탁했고, 이삭도 아들 아람에게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축복하고 있다(창 28:1).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 당시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을 향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마 15:21~28, 막 7:24~30).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들려 고생하는 딸을 치유해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하며 거부했다. 예수님

조차도 하나님 은혜의 민족적 한정성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여인의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청원에 예수님은 딸을 낳게 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에 미친다는 우주적 구원관을 보이셨다.

롯기는 외국인에 대한 태도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책이다. 롯의 성공적인 정착을 살펴보면, 이방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상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이주자에게 은혜를 베풀다. 나옴과 베들레헴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이국 땅 베들레헴으로 온 이방 여인 롯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특히 나옴의 친족인 보아스는 롯에게 생계를 보장하는 은혜를 베풀었다(룻 2:7).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줍도록 허락하고, 더 나아가 곡식단을 조금씩 흘려 롯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한다(룻 2:15).

둘째, 이주자의 권리를 인정해 준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롯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눈여겨 봐야 한다. 보아스는 롯을 기업 무를 자의 대상으로 삼고 그 책무를 다한다. 더욱이 보아스는 롯에 대한 기업을 무를 경우 자신에게 경제적인 소실이 야기됨에도, 롯에 대한 자신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룻 4:6~10). 또한 보아스는 롯의 신변의 안전도 보장했다.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이 이방 여인인 롯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룻 2:9).

셋째, 이주자에게 축복해 준다. 구약성경에는 다른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지만 대부분이 동족에 대한 것이지 이방인에 대한 축복이 아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롯에 대한 축복을 아끼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라 하느니라”(룻 2:12)고 축복한다. 이방인들에게 삶의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해줘야 한다.

교회가 다문화가정 섬긴다!

늘어나는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섬기는 역할을 교회가 주도하고 있다. 그 선봉이 온누리 M미션이다. 온누리M미션은 국내에 들어온 이주민들을 위해 세워진 선교기관이다. 그곳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여러 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한글학교와 스타트리 아카데미가 그 대표적 사역이다.

한글학교는 이주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1997년부터 시작했으니 햇수로 20년째다.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함께 수업을 듣고 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서빙고 본관 지하1층 101호에서 모인다(문의: 이영복 장로 010-7311-1309).

스타트리 아카데미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영어, 한국어, 악기, 신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소련에서 온 고려인, 중국,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네팔, 베트남, 미얀마 등지에서 온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술치료와 상담도 시작했다. 경제, 언어적으로 소외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 섬기고 있다. 그러나 봉사자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어, 영어, 상담 전문가, 악기를 가르쳐 줄 교사를 찾고 있다. 악기 기증도 받는다(문의: 이경숙 전도사 010-5034-0092).

사회선교부 다문화사역팀도 다문화가정을 섬기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회복되도록 돕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진로 가이드, 비전 설정,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세미나, 다문화 가족캠프, 용산지역 다문화가정 초청 문화체험, 다문화 이주 쉼터 및 사역기관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오는 6월 19일에는 다문화가정 세미나 ‘행복드림 콘서트’를 경기도 남양주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예민수 팀장 010-3426-4038).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문화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이민자처럼 이방인처럼 살았고, 이는 역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음을 증거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나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다. 다문화가정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지원해야 한다.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레 19:33~34).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불어권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하여!

프랑스어예배, “융합선교 선봉에 우리가 있다”

프랑스어예배는 2015년 1월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첫 선을 보였다. 융합선교를 위해 만들어진 예배다. 융합선교는 온누리교회의 여러 선교기관들이 협력해 세계 복음화에 힘쓰는 새로운 선교방향이다.

선교분과위원회는 미전도종족이 많은 북서아프리카를 융합선교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2014년 1월 선교분과위원회에서 북서아프리카팀을 발족했다. 북서아프리카팀은 약 1년 동안 융합선교에 부합한 지역 선정을 위한 기도와 논의를 했다. 긴 논의와 조사 끝에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 지역을 융합선교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융합선교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예배가 절실했다. 이를 위해 2014년 5월부터 프랑스어예배 중보기도모임이 시작됐다. 프랑스어예배 창설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2015년 1월부터 프랑스어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숙제가 남아 있었다. 프랑스어예배를 담당할 목회자가 없었던 것. 프랑스어예배 중보기도팀은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해 7월 그 기도가 응답됐다. 디오데미션(프랑스 독립교단)에서 목사를 파송해주기로 한 것이다. 처음 파송된 베레 목사는 6개월 동안 프랑스어예배를 담당했고, 지금은 제라르 티네베 목사가 이어받아 섬기고 있다.

최윤 집사와 <불한성경>

프랑스어예배가 자리 잡게 된 데에는 여러 사람의 수고가 있었지만 정말 애를 많이 쓴 성도가 있다. 프랑스어예배 팀장 최윤 집사다. 최윤 집사는 서강대 프랑스문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프랑스어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모임 때부터 함께 한 인물이다. 그녀는 한국 최초로 <불한성경> 집필을 이끌었다. 2004년에 불한성경을 출간하겠다는 비전을 품고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2007년 프랑스어 관련학을 전공한 동역자 5명이 모였고, 불한대조성경 집필이 시작됐다. 해가 거듭될수록 동역자가 늘어났다. <불한성경> 편집을 마칠 때에는 편집인 35명에, 교정

프랑스어예배는 불어권 유럽인과 불어권 아프리카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다. 한국인도 적지 않다. 구성원 대부분이 불어권 아프리카 복음화를 꿈꾸고 있다. 그곳에 복음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미전도종족이 많기 때문이다. 프랑스어예배는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다. 프랑스어 성경공부, 찬양연습, 선교프랑스어 초급1,2반, 프랑스어회화, 번역, 선교세미나, 아웃리치, 국내 프랑스어권 거주자 전도가 바로 그것이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성도들이 프랑스어예배를 드리고 있다.

위원이 40~50명이나 되었다. 최윤 집사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헌신으로 6년 6개월 만에 <불한성경>이 세상에 나왔다.

<불한성경>을 집필한 이유는 크게 네가지다. 첫째, 프랑스 선교사들을 위해서 집필했다. 프랑스 선교사들은 설교 한 번 하려면 프랑스, 영어, 한국 성경을 모두 따로 봐야 했다. 그들에게 대조성경이 절실했기에 <불한성경>을 집필했다. 둘째, 프랑스어를 배우는 차세대 복음화에도 <불한성경>이 필요했다. 프랑스 대사관 통계에 의하면 해외와 국내 차세대 중에서 불어를 쓰는 한국인이 약 백만 명이라고 한다. 앞으로 불어를 배우는 차세대들이 <불한성경>을 통해 복음화 될 것이다. 셋째, 해외 한인교회에도 <불한성경>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많다. 넷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나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불어권 외국인들에게도 <불한성경>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불한성경>은 약 5천부가 배포됐다.

북서아프리카 선교의 발판

프랑스어예배에서 여러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예배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강의동 304호에서 프랑스어예배를 드리고 있다. 프랑스어예배라고 해서 모두 불어권 외국인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인들도 많이 온다. 불어권 유럽과 아프리카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환영한다. 오후 4시에는 프랑스어 성경공부와 찬양연습을 한다. 프랑스어 성경공부는 강의동 204호, 프랑스어 찬양연습은 VIP룸에서 진행된다. 주중에도 사역이 실시된다. 프랑스어 성경공부는 목요일 오후 7시30분과 금요일 오후 2시, 찬양연습은 목

일 오후 6시 합정동 아시아 선교센터 302호에서 한다.

불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도 프랑스어예배를 많이 드린다. 그들을 위한 선교 프랑스어 초급 1, 2반을 매주 월요일에 운영하고 있다. 초급 1반은 저녁 7시30분, 초급 2반은 8시40분부터 양재 온누리교회 비전홀A에서 진행된다. 6월에 다시 개강한다. 불어 실력을 더 키우고 싶은 성도들을 위한 프랑스어회화반도 있다. 금요일 오후 3시 합정동 아시아 선교센터 302호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1월에는 현지선교사의 요청으로 불어번역팀이 결성되어 차세대와 현지인을 위한 말씀 묵상교재를 번역하고 있다. 불어번역팀은 프랑스어권 차세대를 위한 <SENA(청소년 큐티책)>와 현지인들의 선교훈련을 위한 <와이미션> 교재를 번역하고 있다. 번역한 교재는 SWIM(세계인터넷선교학회)에 올려 선교사들과 현지 목회자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월과 9월에 선교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다. 5월에는 프랑스어권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한 ‘프랑스 개신교 역사’를 주제로 제라르 티네베 목사가 강의한다. 5월 9일부터 4주 동안 매주 월요일 7시30분 양재 온누리교회 비전홀A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통역이 지원되기 때문에 관심만 있다면 누구든지 환영한다.

프랑스어예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아웃리치도 간다. 여름에는 유럽 불어권 지역, 겨울에는 아프리카 융합선교 지역으로 간다. 또한 프랑스어권 거주자들이 많은 서래마을에 예배처소를 세우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어권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 트리오 모임을 결성하는 등 문화적 접근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프랑스어예배는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 북서아프리카 선교의 발판이 되고 있다. 불어권 선교사들이 프랑스어예배를 방문해 사역을 나누기도 한다. 불어권 아프리카는 90% 이상이 이슬람임에도 비자 발급이 까다롭지 않다. 선교의 문이 열린 곳이다. 바로 지금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그곳에 가야할 때다.

기고



임훈 장로
(선교분과위원회
북서아프리카 팀장)

아프리카는 종교적으로 지역을 나눌 수 있다. 아프리카 맨 위쪽은 이슬람 지역이다. 사하라 사막 밑에 있는 사헬지대도 이슬람이 매우 강한 지역이다. 그 아래서 북아프리카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 밑으로는 기독교가 우세한 지역이다. 온누리교회가 관심을 둔 지역은 서부

아프리카다. 이 지역은 기독교와 이슬람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지만 아직까지도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또 매우 가난하고 사며니즘이 강한 곳이기도 하다.

융합선교 시범지역으로 서부아프리카를 선택한 것은 선교적으로 의미 있는 선택이다. 융합선교의 목표는 교회를 새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현지가 현지를 선교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내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곳 사람들이 깊이 있는 변화를 체험하고, 그리

농부가 꾸준히 거름과 물을 주는 것처럼

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마치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꾸준히 거름과 물을 주는 것과 같다. 무엇보다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북서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하기가 오래 되지 않았다. 당장의 변화를 바라보다가 보다 꾸준한 헌신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통계적 수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크리스천으로서 선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선교분과위원회에서 북서아프리카팀이 결성될 당시 아프리카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장

로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많았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된다. 프랑스어예배는 불어권에 관심 있는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 불어를 못해도 괜찮다. 통역을 해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와도 된다. 불어를 배울 수 있는 강의를 많다. 삽화나 번역, 편집, 음악 등으로 섬겨줄 수 있는 사람들도 환영한다. 프랑스어예배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정주호의 “건강한 몸, 거룩한 성전”

스타 트레이너에서 건강 전도사로

건강 전도사 정주호 대표는 건강과 복음을 동시에 전하는 치유자이자 잘 알려진 트레이너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레인(Startrain)은 수많은 연예인들이 운동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건강 전도사 정주호 대표는 ‘건강한 몸, 거룩한 성전’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그 비전 실현의 일환으로 양재 온누리교회에 ‘건전동우회’를 개설했다. 건전동우회는 ‘건강한 몸, 거룩한 성전’의 줄임말이다. 건전동우회는 매주 월~금요일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오전 7시20분 비전홀B에 모여 스트레칭과 덤벨 운동을 한다. 영육의 건강도 챙기고, 건전동우회 회원들과 함께 먹는 아침식사도 즐겁다. 지난달 26일 건강 전도사 정주호 대표를 만났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탄탄한 체구에 강한 눈빛을 가진 정주호 대표는 온화한 목소리로 반전 매력을 선사했다.

건강 전도사 정주호 대표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저명한 트레이너다. 지난 10여 년 동안 JW메리어트호텔, W호텔 트레이너 매니저를 했고, 탤런트 송중기를 비롯해 수영선수 박태환, 배우 최지우, 이병헌, 이범수 등 200여 명에 달하는 연예인들의 몸매를 관리해주고 있다. ‘스타 트레이너’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다. 또한 국내 최초로 5개국(미국, 캐나다, 호주, 홍콩, 한국)에서 트레이너 자격증을 취득했다.

약골 정주호에서 골리앗 정주호로

처음부터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180cm가 넘는 키에 몸무게가 고작 55kg인 왜소한 사람이었다. 동네 친구들로부터 놀림도 자주 받았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이 즐겨하던 축구시합에 끼지 못해 운동장 구석 벤치에 앉아 구경만 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당시에는 운동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다. 가정형편도 녹록치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사업을 네 차례나 실패했다. 그가 학창시절부터 생활비를 벌어야 할 정도였다. 할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다섯 식구가 단칸방에서 산 적도 있었다. 그러던 그가 희망을 찾았다. 바로 헬스

장에서. 튼튼하고, 우람해지면 남자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작정 찾아갔다.

지독하게 운동했다. 몸과 마음을 혹독하게 단련시켰다. 마침내 1999년 ‘미스터 서울 보디빌딩 대회’ 헤비급 서울대표로 선발됐다. 약골 정주호에서 골리앗 정주호로 탈바꿈했다. 그날 이후 JW메리어트호텔과 W호텔의 트레이너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승승장구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데도 마음이 공허했다. 늘 교회에 가고 싶다는 갈급함이 있었다. 너무 바빠 주일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힘들었다. 2007년이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느껴졌다. 지금껏 신앙 없는 교인으로 살다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선교와 복음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선교는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는 일은 때 묻은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몸으로 일해 돈을 버는 이 직업이 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직업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트레이너라는 직업에 숨겨 두신



건강 전도사 정주호 대표가 활짝 웃고 있다.

사명을 발견하고는 새벽마다 회개기도를 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 그즈음 몸무게가 174kg이나 나가는 초고도 비만인 한 아주머니를 알게 됐다. 그 아주머니를 도와야겠다는 일념으로 서울에서 강원도 연천까지 달려갔다. 왕복 4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도움을 거절했다. 그의 친절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30년 기다려준 하나님도 있는데 내가 이 아주머니를 못 기다릴 이유가 없다.”

기다림 끝에 그 아주머니가 마음의 문을 열었고 함께 운동을 시작했다. 논밭에서 돌을 기구 삼아 운동을 했다. 그렇게 1년 동안 노력한 끝에 64kg을 감량할 수 있었다.

“그 아주머니와 운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목적을 찾았어요. 제가 가진 재능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이름을 ‘스타 트레이너’에서 ‘건강 전도사’로 바꿨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정체성을 발견한 것이다. 그날 이후 몸도, 신앙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고 있다.

“몸이 약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운동이 곧 예배입니다. 운동해야 건강한 육체를 만들고, 건강한 육체를 가져야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는 짬이 날 때마다 온누리교회와 함께 사역하고 있다. 서빙고 권사회, 대학청년부, CGNTV에 출연해 건강비결을 전수하고 있다. 양재 온누리교회에서는 건전동우회를 운영하고 있다. 스타트레인 소속 크리스천 강사들이 덤벨 운동 및 스트레칭 방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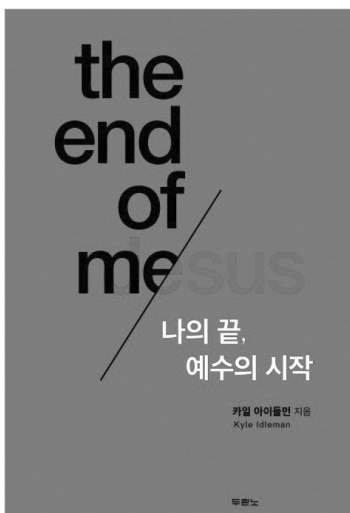
문의 : 정명옥 (010-9950-8160)

최순영 (010-2745-2302)

일정: 매주 월~금 오전 7시 20분, 양재 온누리교회 지하1층 비전홀B

기고

〈나의 끝, 예수 시작〉을 읽고



카일 아이들먼의 저서 〈나의 끝, 예수 시작〉은 강렬한 표지부터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책은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과 누군가에게 쉽게 고백할 수 없는 절망의 끝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게 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끝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복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책은 산상수훈 말씀으로 시작한다. 예수님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다. “절망이 복이라고?” 이것이야말로 역설적 표현이다. 왜냐하면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하나님이 평안과 임재, 위로를 주시기 때문이다. 읊기 말씀처럼 귀로만 듣던 주님이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뵈는 은혜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세면에 가서 손과 마음을 씻는 기도를 하라고 권한다. 겉모습은 깨끗하게 씻을 수 있지만, 내면은 하나님만이 씻겨 주셔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길

산상수훈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비움도 강조했다. 하나님은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을 좋아하신다. 비어 있어야 채워질 수 있다. 예수님의 채우심은 단순히 한 끼 양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기쁨이자 풍요이고, 영원한 생명이자 성령 충만이다.

이 책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끝에 이르러서야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모험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나의 끝에 이르는 것은 목은 잘못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 끝에 선다는 것이다. 끝에 선 사람들에게 저자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난 성적표를 찢어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익숙해져 감동을 잃어버리고, 습관처럼 살고 있는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깨어진 부분을 돌아보게 한다. 세상에서는 깨어지면 가치를 잃지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깨어진 우리를 다시 빚어 사용하신다.

벼랑 끝에서 본 사람은 잠을 것이라곤는 주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주님을 따라 나설 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그 길은 좁은 길, 내가 죽어야 하는 길이다. 제자의 길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길이다. 나의 끝은 예수님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살기를 소망한다. 제자의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이 감동을 나누고 싶다.



이윤재 목사 (인천 온누리교회)

인천 온누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창립 10주년 기념예배 ... “영적소동 일으키는 공동체 되기를”

인천 온누리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24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10년 전 목욕탕을 개조한 비전빌딩에서 50명의 성도로 시작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성도수가 34배 늘어 1,700여 명이 예배드리고 있다. 올해 2월에 송도 컨벤시아로 예배 처소를 이전하면서 젊은 부부와 차세대가 증가했다. 인천 온누리교회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봤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인천 온누리교회 창립 10주년 케이크 컷팅식.

인천 온누리교회에게 올해는 정말 뜻 깊은 해다. 교회 창립 10주년이기도 하고, 올해 2월 인천시 구월동에서 송도동 ‘송도 컨벤시아’로 예배 처소를 이전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드린 창립 10주년 기념예배에는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와 축하객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예배에서 당회서기 정과중 장로는 “인천 온누리교회가 거룩하고, 낮아진 교회, 차세대를 향한 소망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인천 온누리교회 연합 찬양사역팀은 ‘부활하신 왕께 면류관 드리세’를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설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했다. 이 목사는 “인천 온누리교회가 인천 땅을 변화시키는 기를 바란다”면서 “영적 소동을 일으키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축복했다.

인천 온누리교회 장만안 성도는 “교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했고, 오용숙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처소를 이전하게 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성도들이 더욱 화합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인천 온누리교회의 태동과 성장

2005년 겨울, 인천 온누리교회 개척을 앞두고 인하대학교 캠퍼스 강당에서 발족 모임을

개최했다. 당시 부천공동체 일부 성도와 인천에 거주하는 성도 50여 명이 모였다. 2006년 1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비전빌딩에서 인천 온누리교회 창립을 소망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당시 인천 온누리교회를 담당했던 공진수 목사와 성도들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지하 목욕탕을 개조해 예배처소를 만들었다. 본당을 지하에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교회 주변이 주택가인데 예배드리면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해 4월 30일, 드디어 인천 온누리교회가 여덟 번째 국내 캠퍼스로 창립됐다. 인천 온누리교회 창립예배에서 공진수 목사 부부, 김성진 장로 부부, 김승배 남인천다락방장 부부가 리더십으로 안수기도를 받았다. 당시 창립예배에는 성도와 축하객 280여 명이 참석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인천 온누리교회 초등부(꿈방) 학생 60명, 교사 18명, 학부모 14명이 첫 번째 여름성경캠프를 열었다. 2007년에는 손신국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해 성령사역을 시작했다. 2008년에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를 주제로 어린이 특별새벽기도회를 열었다. 2010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이준호 목사가 담임목사로 사역했고,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서경남 목사가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

을 주는 교회로 유명하다. 2011년부터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사정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섬기고,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순 단위로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순과 이웃이 자매결연도 한다.

2015년 5월에는 ‘사랑의 쌀독’ 행사를 개최했다. 형편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매주 토요일 오전 10~12시에 1인당 쌀 2kg씩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다. 이러한 섬김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2015년 6월 30일에는 남한산성 목사의 집에서 ‘새가족을 위한 축제’를 개최했다. 새가족이 잘 양육 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열린 행사였다. 기존 새가족 만남의 잔치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고, 쉼을 위한 사이닝글로리 프로그램을 결합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성도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세수식과 성찬식을 거행했고, 화환도 띄워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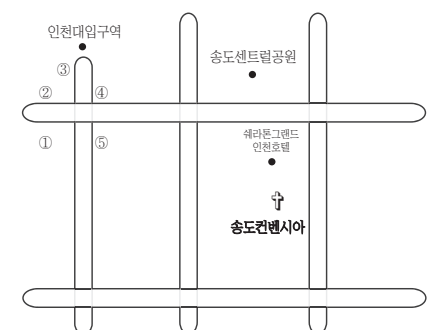
2015년 9월 20일에는 인천 온누리교회에도 장애인을 위한 예배공동체 ‘사랑부’가 개설됐다. 미취학 아동부터 20세 미만 장애인을 위한 예배공동체다. 12명의 성도가 6개월 동안 기도하고, 헌신한 열매다. 2015년 11월 15일에는 송도 컨벤시아로 예배 처소 이전을 축하하는 의미로 45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핸델의

‘오픈 메시아(Messiah)’를 합창했다. 올해 2월 28일에 송도 컨벤시아로 예배 처소를 완전히 이전했다.

공동체 활동과 선교적 교회를 꿈꾼다

인천 온누리교회 리더십들과 성도들은 새로운 예배 처소 이전에 마음을 모았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말 성도 5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남성 41%, 여성 59%가 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새롭게 이전한 송도 예배 처소에서 이뤄갈 청사진을 그리기 위함이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도 514명 중에 40대가 가장 많았고, 50대, 30대, 60대, 20대, 10대 순이었다. 온누리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는 가족 및 친구, 지인의 소개가 가장 많았고, CGN TV, 온누리신문, 인터넷 정보, 이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성인예배를 드리는 성도 중에 기혼자가 91.6%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와 함께 예배드리는 비율은 70.3%,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비율은 77.7%였다(중복응답). 교회에 등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61.8%가 공동체 활동, 61.5%가 순모임 참여, 46.2%가 사역에 참여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했다(중복응답).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꿈꾸는 교회모델은 선교적 교회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차세대 중심교회, 기독교화 중심교회, 가족중심교회, 국제예배 및 다문화교회 순이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송도컨벤시아

기고



송동섭 장로
(인천 온누리교회 대표장로)

내가 인천 온누리교회에 온지도 어언 10년이 흘렀다. 초창기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함께 기도하며 ‘바로 그 교회’를 꿈꿨다. 10년이 지난 지금, 인천 온누리교회는 젊은이 중심, 차세대가 많은 교회로 바뀌고 있다. 구월동에서 예배드릴 당시에는 성도가 1천2백에서 1천5백 명이 출석했다. 최근 송도 컨벤시아로 예배 처소를 이전하면서 성도가 1천7백 명으로 늘었다. 젊은

부부와 차세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송도 예배처소에서 인천 온누리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했다.

첫째,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차세대와 대학청년부의 활성화 방안을 의미한다. 앞으로 송도에는 내년까지 4만2천여 세대, 13만9천여 명의 주민들이 유입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인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가 있고, 인하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캠퍼스가 유치될 예정이다. 또 뉴욕주립대학교와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겐트대학교, 유타대학교에서 920명의 학부생과 210명의 대학원생이 이미 송도에 거주하고

인천 온누리교회의 꿈

있다. 대학청년부와 차세대를 위한 예배를 꿈꾼다면 앞으로 인천 온누리교회가 글로벌 교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제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말한다. 이것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를 외국인 거주 현황에서 찾을 수 있다. 외국인 2만8천명, 근로자 2만7천명, 탈북자 2천5백 명이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송도구와 연수구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6천여 명, 남동구에 사는 탈북자가 1천7백 명이나 된다. 인천 온누리교회가 꿈꾸고 있는 송도글로벌 캠퍼스에 국제유치원, 탈북자 교육센터, 외국인 근로자

를 위한 나그네 쉼터, 선교사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면 이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땅 끝까지 선교사명을 완수하는 교회를 소망한다. 선교적 교회는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교회다. 송도에 사는 이주민과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이곳을 선교의 거점지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인천 온누리교회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뛰는 열정이 필요하다.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송도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젊은 리더십을 발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협력할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교회직분은 과분합니다. 평생 평신도로 살고 싶습니다.”

인천 온누리교회 이동주 성도의 말이다.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기로 정평이 난 성도가 어쩔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한지 모르겠다. 아내 채윤에 성도도 똑같다. 겸손함까지 닮았다. 이동주, 채윤에 부부는 인천 온누리교회 초창기 멤버다. 15년 전 온누리교회에 처음 나왔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그들 부부를 인천 온누리교회의 일꾼이라고 부른다. 그 정도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섬긴다.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남편 이동주 성도는 인천광역시 소속 행정사무관이고, 아내 채윤에 성도는 약사 출신이다. 예수 만나고 완전히 달라진 이동주, 채윤에 성도의 신앙고백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소문난 일꾼 이동주, 채윤에 성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하여 끝까지 섬길 것”

남편 이동주 성도는 선한 인상에 조용한 성격이고, 아내 채윤에 성도는 조리 있는 말솜씨와 당당함이 매력이다. 이동주 성도는 2000년 아내를 따라 온누리교회에 오면서 조금씩 변화했다. 이동주 성도는 유년시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장사를 오래 하신 부모 밑에서 자랐다. 부모님이 황혼에 이혼을 한 영향으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별로 없었다. 아내 채윤에 성도는 이복에서 내려온 부모 밑에서 자랐다. 그 영향으로 추진력 있고, 성품이 강직했다.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계셨다.

채윤에 성도는 남편을 설득해 매주 주일 아침마다 인천에서 서빙고 온누리교회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 교회 오는 길에 시댁에 들렀고, 예배드리고 가는 길에는 친정에 들렀다. 그것이 이동주, 채윤에 부부의 주말 일과였다. 그들 부부는 부모님을 잘 챙기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4년 동안 계속했다. 그러다 2005년에 온누리교회에 등록했다.

“당시 남편은 저를 위해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믿음이 생겨 교회 오는 것이 익숙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의 신앙도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이동주 성도는 아직도 세례 받던 날을 잊지 못하고 있다.

“세례를 받을 당시에 시커먼 물이 쏟아져 나가고 맑은 물로 바뀌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그 느낌이 생생해요.”

그날 이후 남편이 달라졌다. 덩달아 아내의 신앙도 성장했다.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긴 것도 그즈음부터다.

2006년 4월 30일 인천 온누리교회가 창립됐다. 당시 이동주 성도는 주차팀장, 채윤에 성도는 러빙핸즈를 섬기고 있었다. 그 해 여름에는 몽골로 생애 처음으로 아웃리치를 갔다. 편안하고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내 채윤에 성도의 가정에 위기가 생겼다. 2009년 채윤에 성도의 아버지가 소천 했는데 1년 뒤에 큰언니마저 하늘나라로 가게 된 것. 연달아가 족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마음이 무척 지치고, 힘들었다. 인생의 외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자녀가 없는 이동주, 채윤에 부부가 조카 3명을 보살피고 있다.

“인공수정을 세 번이나 할 정도로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지만 안 생겼어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구하지 않았던 것이 저의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아내의 큰언니가 소천하면

서 자녀가 없는 저희 부부가 조카 3명을 보살피게 됐어요.”

이동주, 채윤에 부부는 긍정적인 사람들이다. 인생의 좌초(坐礁)를 겪어도 크게 불평하지 않았다. 긍정의 힘으로 버텼다. 물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부관계에 위기가 찾아왔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섭섭함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서운함이 물밑에 밀려왔다. 그래도 5년 가까이 갈등을 표현하지 않고 맞추며 살았는데 그것이 계속 증폭됐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아온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았다. 서로의 존재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을 잠시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 사고가 있기 전까지 말이다.

남편의 사고소식을 듣고

이동주 성도는 다년간 홍보분야에서 활동했다. 1983년에는 제일기획에서 AE(Account Executive)를 했고, 한국일보에서 편집기자도 했다. 1993년에는 공보처 별정사무관을 역임했고, 1995년부터 인천광역시 대변인실에서 홍보위원으로 근무했다. 지금은 동북아시아 소 재해경감국제교육훈련연수원(UNISDR)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무시를 당해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해도 성실하게 일했다. 고된 직장생활이 그를 늘 외롭게 만들었다. 별정직 공무원은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는 있지만 승진이 어렵다.

“그렇게 15년을 지냈더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승진도 할 수 없었고, 동료들의 직급이 높아질수록 저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의 자리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2012년 행정법이 변경되면서 별정직 공무원이 행정직으로 전환되었다.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강이 문제였다.

“당시 스트레스를 못 견뎌 오십견과 통풍이 생겼어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2014년 6월, 이동주 성도가 아내에게 직장을 그만둬야겠다고 말했다.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해 12월 행정직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아 자리를 이동



인천 온누리교회 이동주, 채윤에 부부.

했다. 행정직으로 보직을 변경하고 1년 뒤 남편이 공무원 연수를 신청했다. 2015년 6월, 이동주 성도가 공무원 연수생들과 함께 중국 동부지방으로 출장을 갔다. 그런데 백두산 북쪽 비탈에서 그가 탄 버스가 추락하면서 탑승자 28명 중 11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맨 뒷자리에서 세 번째 칸에 탔던 이동주 성도는 다행히 무사했다.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가 버스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 버스가 전복된 것이다.

“아마 제가 그 상황에서 눈을 뜨고 있었더라면 크게 다쳤을 겁니다. 버스가 전복됐을 당시 바닥에 물이 잠겨 있었는데 버스 창문으로 누군가 저를 끄집어내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믿고 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부상이 가볍지는 않았다. 두피에 외상이 생겼는데 뇌출혈일 수도 있으니 중환자실로 이동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소견이 나왔다.

그 시각, 사고소식을 뒤늦게 접한 아내 채윤에 성도가 남편의 전화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동안 쌓여 있던 남편에 대한 섭섭함과 서운함이 한 순간에 완전히 사라졌다. 남편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됐다. 오만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혼란스러웠지만 정신 차리고 무릎을 꿇었다.

“남편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빨리 듣고 싶었어요.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는데 차에서 남

편을 꺼내 준 사람과 우연히 연결이 됐어요. 남편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동료들은 그에게 구사일생, 운 좋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그 일을 계기로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

남들과 조금 다른 꿈을 꾸는 부부

“저는 인천 온누리교회의 영원한 평신도가 되고 싶어요.”

이동주, 채윤에 성도는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10년을 섬겼는데 이동주 성도는 교회직분이 없다. 이동주 성도는 예배팀장으로 섬기고, 채윤에 성도는 수요여성예배를 섬기고 있다. 그에게는 남들과 조금 다른 꿈이 하나 있다. 어떠한 직분도 없이 성실하게 섬기는 평신도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은 그들의 변명일 뿐이다.

“매주 주일 예배를 섬기는 것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예배를 만들고 싶어서 토요일부터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인천 온누리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이동주, 채윤에 성도의 신앙이 꽃향기보다 그윽하고, 진하다.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이성민 목사
(여호수아공동체)

저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시고, 목사로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저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삶을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제가 만난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라는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윤상 목사
(SNS공동체)

부르심의 길 가운데 목사 안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기도와 격려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감사한 이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매일 삶 속에서 소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롬12:15). 이 말씀처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있는 목회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회자 이전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한 사람의 크리스천이 먼저 되겠습니다.

정성훈 목사
(Pole2공동체)

목사의 직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종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많은 기도로 격려해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이 말씀은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 예수 바보로 살아가는 겸손하고, 신실한 주의 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 공개강좌

5월 7일 오후 2시 두란노빌딩 101호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에서 5월 7일 오후 2시 서빙고동 두란노빌딩 101호에서 공개강의를 연다. 강사는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가장 큰 소액금융은행 ‘우르웨고 어포튜니티 은행’의 전 CEO이자, 사회적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NGO Sff(Synergy for the Kingdom) Life

Corporation’ 대표 제프리 리(Jeffery Lee) 장로다. 그는 이번 공개강의에서 ‘마이크로파이낸싱을 통한 지역 사회개발’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2000선교본부 02-3215-3644 손원민 팀장 010-8932-9901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대학부 세미나 ‘응답한다 0519’

5월 19일 오후 7시

대학부가 라비 재커라이어스 초청 세미나 ‘응답한다 0519’를 개최한다. 5월 19일 오후 7시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막 오른다. 온누리교회 대학부와 G&M글로벌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계적인 변증가 라비 재커라이어스가 ‘기독교가 당신을 실망시켰습니까?’를 주제로 40분 동안 강

의하고, 1시간 동안 질문에 답한다. 방송인 정선희, 합합가수 마이크로 닷, 샘옥&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려면 온오프라인으로 라비 재커라이어스에게 직접 질문하고, 모바일 티켓을 수령해오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questions0519.org), 오프라인은 대학부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 김미림 기자

‘온누리 의사의 밤’

5월 7일 오후 5시

의료선교팀 CMN(Christian Medical Network)이 ‘온누리 의사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5월 7일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오후 5시에 열린다. 온누리 의사의 밤 행사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SDG와 전병곤 성가사, 신텔라가 특송을 한다. 김재훈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토크쇼도 이어진다. 문의: 02-3215-3786

/ 이소정 기자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모집

5월 7~28일 4주 동안 매주 토요일

111기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가 개강한다. 5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1~2주차는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 3주차는 크라운해태연수원에서 1박2일, 4주차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전화나 아이스쿨, 홈페이지(www.onnurifamily.com)

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 당 20만 원. 자녀를 동반할 경우 1인당 3만원 추가.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에서는 부부 대화, 성, 치유, 하나님의 가정 원리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금세종 팀장 010-5235-2526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91기 어머니학교 수강생 모집

5월 11일 ~ 6월 15일 매주 수요일

91기 어머니학교가 개강을 앞둔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91기 어머니학교는 5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5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행복한 아내, 따뜻한 엄마가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전화나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1999년에 시작한 어머니학교는 건강한 여성이 되도록 돕고 있다. 성경적 여성상 회복, 아내로서의 사명, 어머니의 영향력, 기도하는 어머니, 십자가와 사명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2-2182-9114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화관 주문제작 해드려요”

한터공동체가 탈북민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경제적 자립도 돕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는 의미 있는 행사를 실시한다. 여성 탈북민으로 구성된 한터공동체 소속 공방 ‘카라하(Callaha)’에서 소정의 비용을 받고 순맞춤전도집회용 화관을 주문제작 해주기로 한 것.

한터공동체 허원희 목사는 “한터공동체에 맡기면 탈북민들에게 작은 일거리가 제공되어 그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된다”고 말했다.

문의: 010-9216-3862

오카야마 참가자 교육

5월 12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두란노홀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2차 참가자 교육이 5월 12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러브소나타 봉사자 교육에서는 오카야마 지역설명, 봉사 안내,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간단 일본어 회화와 일본어 노래를 가르쳐 준다.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참가자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문의: 02-749-1149 / 정현주 기자



오카야마 기·도·제·목

- 5월2일(월) 지진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뤄지고, 위로의 영으로 덮여주시길
- 5월3일(화) 24번째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본 부흥의 불씨가 점화되기를
- 5월4일(수) 실행위원들에게 지혜와 강건함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5월5일(목)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재훈 목사님이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 5월6일(금) 전도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결실이 있도록
- 5월7일(토) 모든 강사, 게스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도록
- 5월8일(주일) 스태프,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도록

■ 교사가 제자들에게



/ 안지수 교사(서빙고 유치1부)

윤기, 존, 승기, 성건, 사랑, 예빈, 아윤, 지의에게.

사랑하는 뽀뽀반 아이들아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너희들을 나에게, 나에게 너희를 보내주셨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한없이 예뻐해 주고, 소중히 돌봐달라”고 말씀하셨어. 사실 선생님은 올해 유치부를 맡지 않으려고 했었던단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되었어. 꿈속에서 하얀 어린 양들이 떼를 지어 몰려오더니 선생님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놀아달라고 하는 거야.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귀찮게 느껴져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너무나도 귀엽고 예쁜 아기 양들을 꼭 안아줬단다. 꿈속에서 만난 어린 양들을 너무 예뻐했던 선생님의 마음이 지금도 생생하단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유치부 교사로 계속 섬기기로 결심했어. 그렇게 꿈속에서 만난 양들보다 더 사랑스럽고 예쁜 너희를 만났어. 선생님이 고민 끝에 생각한 반 이름이 ‘뽀뽀’야. 뽀뽀는 선생님이 너희들 만날 때 할아버지께서 붙여준 별명이라네. 웃기고 생소한 이름이지? 뽀뽀는 성경에 딱 한번 나오는 인물이야.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교회의 일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뽀뽀반’ 보물들에게

고 추천한 집사의 이름이 바로 뽀뽀야.

선생님은 너희들이 뽀뽀같이 누구에게나 돕직한 동역자, 든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있어. 너희는 선생님의 가장 돕직한 동역자야. 주일날 아침 선생님을 향해 활짝 웃어주는 너희들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걱정과 피곤함을 잊을 수 있어. 고사리 손으로 율동을 따라 하고, 실눈을 뜨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입마 미소를 짓지. 너희들과 함께하는 감사함과 즐거움이 선생님에게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야. 선생님 마음에 사랑이 모자랄 때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 사랑을 가득 채워주신단다.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들아! 선생님이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히 가늠할 수도 없단다. 너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들 편에 계시. 너희가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다른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랄게. 나의 보물 뽀뽀반 아이들이 사랑하고 축복한다!

■ 세레간증



/ 김민아 자매(요셉공동체)

이제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렸을 적 나에게 교회는 맛있는 간식을 주는 곳이었다. 학창시절 나에게 하나님은 좋은 대학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였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기도했지만 사실 다른 마음이 있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이기적이고 나의 잘됨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면 모든 일이 잘될 줄 알았다. 하지만 말씀으로부터 떨어진 삶은 너무 어두웠다. 오랜 유학생살로 많이 외로웠는데 말씀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했다.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걱정하고 불안할 때도 예수님께 털어놓지 않았다. 직장에 다니며 인간관계가 힘들었을 때에도 나 자신밖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8년을 방황하고, 직장생활 3년차에 접어들었을 때 스스로 진심이 너무나 무거웠다. 어쩔 줄 몰라 힘들어하고 있던 내게 동생이 온누리교회와 친구들을 소개해 주었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있던 터라 찬양도 설교도 낯설었다. 하지만 소개받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꾸준히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어느 날 설교에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왔다.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멋대

로 살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탕자가 나 같았다. 하나님은 탕자 이야기를 통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네가 돌아와서 기쁘구나”.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8년 동안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셨으며, 한순간도 내 손을 놓지 않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 이후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듯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다. 공동체에서 나누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셨다. 말씀을 통해 나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주셨다.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며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

지난 2년 동안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많이 생겼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등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기준이 아니다. 이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 말씀으로부터 떨어진 삶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것이다.

■ 의료사역팀 CMN 라파팀 간증



/ 심형섭 팀장(가정사역공동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나는 2008년 안산M센터에서 CMN 라파팀 일원으로 이주민을 위한 치과진료 봉사를 시작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9년 동안 매 주일 봉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CMN라파팀은 매월 서빙고 온누리교회 상담실을 섬기고, 셋째 주에는 안산M센터에서 외국인과 이주민을 위한 진료도 하고 있다. 몇 해 전 파키스탄 형제를 치료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 형제는 어금니 뿌리 쪽에 고름집이 있어서 신경관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일주일여 한 번 임시로 가봉한 것을 열어 소독을 해 주어야 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만 치료를 받다보니 몇 달이 지나도 쉽게 낫지 않았다. 결국 그 형제가 오후 늦은 시간에 찾아와 항의했다. 우리에게 대한 불신뿐 아니라 한국생활에서 어려웠던 상황들이 겹쳐졌던 것처럼 보였다. 그때 우리는 진료를 마치고 뒷정리 중이었다. 나는 잠시 기도를 하고 정리한 것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치료했다. 그러나 또 한 달 뒤에 진료를 받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런 내 걱정과 달리 한 달 뒤에 왔더니 증상이 많이

개선되어 있었다. 너무 감사했다.

진료를 마치고 나면 몸은 피곤하지만 이주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낀다. 여러 곳을 치료해야 되는 분들도 많은데 진료시간과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쉽다. 그러던 중 감사한 소식이 들렸다. 수원 살롬팀과 성동광진공동체의 실로암팀이 둘째 주와 넷째 주에 동역하게 됐다. 올해부터는 청년 한동팀도 격월로 함께 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안산M센터 이주민들이 치료를 자주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산M센터를 위해 수고하는 목사님과 간사님, 외국인 근로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라파팀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안산M센터 이주민들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지만 진료 중에 “오늘 예배드리고 왔나요?”라고 물어본다. 진료만 받고 가는 분들에게는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갈 것을 권한다. 나그네와 같은 이주민들이 안산M센터 예배에서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한다.

■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반 수료 간증



/ 이희준 성도(드림플러스공동체)

나의 갈급함을 채워줬다

나는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시작하기 전까지 온누리교회에 일대일 제자양육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신청할 때도 이 과정을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있었다.

양육자님과 처음 만난 것은 드림플러스공동체 예배 전에 실시한 리더십훈련 때였다. 그 날 리더십훈련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나와 양육자님이 짝이 되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다가 둘 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분이 나의 일대일 양육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드림플러스공동체에는 일대일 양육자가 적었기 때문에 나는 성인공동체에 일대일 제자양육을 신청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대일 제자양육 매칭을 담당하던 대학청년부 MC에게 연락이 왔다. 리더십 훈련에서 나와 양육자님이 교제하는 모

습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둘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는 날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했다.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에 나왔다. 설교시간 말고는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정작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다. 내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갈급함이 있었다. 이번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나의 갈급함을 채워줬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 근거해서 알려주어서 더욱 좋았다. 귀한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무사히 수료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장로칼럼

권사칼럼

멋진 장애인 생활시설이 생기길



강찬석 장로
(서대문공동체)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의 날’은 기독교인들의 크리스마스만큼 기쁜 날이다. 이렇게 기쁜 날을 맞이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다. 지난 4월 22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옆 구 골프장에서 ‘제 1회 늘푸름 장애인 체육대회’를 열었다. 늘푸름 소속 직원들인 장애인, 온누리교회 사랑부 지체들, 교역자, 간사, 성도들이 함께하는 전국잔치를 벌였다.

늘푸름은 세 곳의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섬기는 비영리기관이다. 보호작업장은 학교교육을 마친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가서 직업인이 되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장이며 직장이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이곳을 섬겼다. 그 시간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 10여 년 전 늘푸름 장애인 직업훈련재활원 경영이 어려우니 도움을 달라는 갑작스런 지인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다. 장애인의 ‘장’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장애인 직업재활원을 맡느냐는 집사람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늘푸름 직업재활원의 재정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기관을 폐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 같았다. 아내와 처음 방문한 늘푸름 직업재활원은 아주 썰렁했다. 난방기구도 없이 토끼털 귀마개로 추위를 견디는 열두 명의 장애인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곳을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착잡했다. 아무리 고민하고 머리를 써 봐도 늘푸름 직업재활원을 회생시킬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밤잠을 설쳐가며 사흘을 고민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곳을 방문했다.

“월급을 안줘도 좋으니 일자리만 유지해 주세요.” 원장과 장애인들이 나에게 한 말이다. 그들을 다시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도 어려운데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뻔했고, 우리 부부는 그 뜻에 순종했다. 운영자금도, 경영능력도 없이 맨 몸으로 부딪히며 섬겼다. 하나님은 수년 동안 우리를 방초동산의 좋은 꼴로 막이시고 인도하셨다. 각고의 노력 끝에 2009년과 2013년에 두 곳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더 신설했다. 현재 고양시 관산동, 은평구 수색동, 구로구 온수동에 작업장이 있는데 각각 A4용지, 감열지, 재생 토너, 화장지, LED등을 생산하고 있다. 품질들이 정말 좋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장애인들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그동안 나는 많은 장애인들과 장애인 부모들을 만나면서 배운 것이 있다. 장애인들의 자립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장애인 재활원을 맡긴 것은 장애인 자립을 도우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 자녀를 둔 어떤 부모는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도, 들어볼 수도 없는 처절한 속내를 이야기 한다.

“장애를 가진 자식이 나보다 딱 하루 먼저 내 앞에서 죽는 것이 바람입니다”

죽음 직전까지도 자녀들의 앞길을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홀로서기가 힘든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가족 중에서 장애인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있고, 나름대로 대책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동안 늘푸름 직업재활원에서 결혼한 장애인부부도 있고, 직업을 찾아 떠난 장애인은 셀 수 없이 많다.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립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직업을 찾기 위한 재활이 더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를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쓰신 것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시설을 만드는 일에도 쓰실 것 같다. 장애인들을 위해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다. 하루 빨리 하나님의 힘으로 멋진 장애인 생활시설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

문의: 강찬석 장로 010-7177-6091

행복큐티



성아나 권사
(여의도공동체)

1997년 초 20년 동안의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온 가족이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했는지, 한국인과 가정은 어떠한지 무척 궁금했다.

두란노 상담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상담실에서 봉사를 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하셨다. 미국에서 해 오던 소그룹 말씀사역이 바로 그것이였다. 나는 지난 30여 년 동안 기도모임, 큐티 세미나, 가정교회, 제자훈련, 성경세미나 등 다양한 소그룹을 인도했다. 지금은 BEE KOREA(성경연장교육원)에 소속되어 베트남을 비롯한 국내외에서 말씀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욱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최근 하나님께서 BEE KOREA 사역 외에도 회복사역으로 나를 부르셨다. ‘행복큐티’를 인도하게 된 것이다. 행복큐티는 남편 성주명 장로가 인도하는 ‘행복반’의 한 과정으로 3주 동안 진행된다. 성주명 장로는 <뒤늦게 찾아온 행복>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2013년부터 12주 동안 행복반 모임을 진행했는데 많은 이들이 회개와 용서, 기도를 통해 아픈 과거와 화해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있다. 진정한 회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행복반은 자신의 상처와 행동의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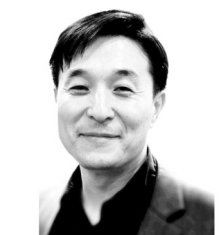
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행복큐티는 마지막 3주 동안 진행되는 과정이다. 큐티를 배우고, 나누며,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적용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 자신과 현재 상황, 삶의 모든 부분을 자세히 조명하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관계에 대해 말씀하신다. 큐티시간에 비로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할 때에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

많은 성도들이 큐티의 중요성을 알고, 열심히 하지만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성도들이 행복큐티를 하면서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을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자 보람이다. 큐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훈련이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 그러면 쉬워진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큐티의 능력이다.

기도모임, 성경공부, 영성훈련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묵상을 통해 내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난 30여 년 동안 큐티를 통해 주님을 바로 알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상처, 낮은 자존감, 관계의 문제를 치유하셨다. 19살에 부모로부터 독립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주신 진정한 부모셨다. 나는 큐티의 능력을 잘 안다. 많은 이들에게 서로의 삶을 나누고, 큐티를 통해 더욱 친밀해지도록 돕는 것이 어느 소그룹 인도보다 즐겁고, 보람되고, 행복하다.

신앙에세이



정장철 목사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산이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산을 오른다. 캘리포니아의 산은 우리나라 산과 숲과 나무의 구성이 다르고, 형세도 많이 다르지만 사람들이 산을 오르는 이유는 비슷할 것이다. 건강을 위해 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마음의 안정을 위해 오르기도 하고, 자신과의 싸움을 위한 일종의 게임으로 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그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자신이 그렇게 집착했던 일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 오르기도 할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산을 오르는 과정은 육신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에게 어떤 신호

를 보내는 작업이다. 이마에서 시작된 땀이 얼굴 위로 흘러내리고, 숨이 턱 아래까지 차오르는 몸의 반응은 우리의 영혼에 강한 자극을 준다. 그런 자극을 통해서 산을 오르기 전에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다.

믿음의 영역도 이와 다름없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산을 오른다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 위에 계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빈번하게 만나는 하나님은 산 위의 하나님이다.

호렙산은 성경에 여호와와 산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기다리시고 만나주신 곳이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고, 홍해를 건너 광야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시내산에서 그들을 기다리시고 만나주셨다. 그 산이 가진 이름의 뜻

처럼, 건조하고 가시땃불이 가득한 비록 불꽃 없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셨다.

그보다 훨씬 오래 전에는 하나님이 모리아의 산 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만나주셨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산 위에서 자신이 준비한 제물인 아들을 바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예비하신 숫양을 바치도록 하셨다. 처음에는 의심과 믿음의 혼재 속에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라갔던 아브라함이 기쁨과 환희의 노래 속에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산을 내려왔다. 그 아름다운 예배가 있었던 산에서 훗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성전제사가 행해졌다. 다윗 왕이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불렀던 시편들 속에는 시온산 위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셨고 주께서 계시는 곳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곳이 영원토록 내 안식처가 되리라. 내가 여기 있을 것이

다. 내가 그것을 바라나.’”(시편 132:13-14).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 왕처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산을 향하는 모습은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오르는 절박한 몸짓이 인생의 고비와도 닮아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방법이다. 과정은 힘들지만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산 위에서서 “야호” 대신 “할렐루야!”를 힘껏 외칠 수 있는 때가 오리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산 위로 부르신다. 세상의 익숙함에서 벗어나 조금은 다른 곳으로 부르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고대하신다. 그곳에 다다르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세상을 내려다보게 된다. 이런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방식이 아닌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도울 것이다. 우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해주실 산 위의 하나님을 기대한다.

산 위의 하나님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나다

말씀증거를 통해 이러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교회 역사에 이러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15세기 이탈리아의 종교개혁자 ‘사보나롤라’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피렌체에서 포르노 그라피 잡지들을 모조리 불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영적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미신과 우상, 사기와 죄악으로 가득한 곳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표증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환자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낫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신기한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술과 주술, 사기와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소동과 영적소동

이때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등 신비한 기적을 행하니 바울의 이름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주문을 외우듯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그 말을 주문처럼 이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해야 하는데 자신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라면서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행 19:15).

악한 영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능력도 없는 너희는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아마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발가벗기고, 피를 흘

리고, 도망갔다는 것이 에베소에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악한 영이 비참하게 당하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두 가지 큰 소동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이 증거되는 일은 사회에 소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이들이 자신들의 불의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을 싫어하는 악한 마음에서 일으키는 반대소동이고, 또 하나는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자신들의 불의한 일을 불태우는 회개의 영적소동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두 가지 소동이 항상 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말씀 사역과 성령님의 결과입니다. 말씀이 세상에 전해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사회에서 이러한 소동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소동을 일으키는 교회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무더운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서너 시까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태양보다 더 뜨거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령세례에서 왔습니다. 성령세례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신비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신비한 기적들이 일어남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무릎 꿇고, 우상을 떠났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동시에 그리고 순환적으로 역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사회의 변혁으로 나타납니다.

한국 역사를 보십시오. 1907년 평양대부흥이 일어난 이후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내려오던 노비제도, 축첩제 등 악습들이 하나씩 끊어졌습니다. 1907년 평양대부흥이 일어난 후에 노비제도 폐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영적운동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등 다른 사회운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는 영혼들을 통해서 사회적 변화가 생깁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 때부터 애를 썼습니다. 그가 죽은 직후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사회지도자가 되고, 자기가 처한 곳에서 사회를 변혁했습니다. 짐 심발라 목사님이 마약과 매춘, 중독과 약탈이 가득한 브루클린에서 20여 명으로 시작한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교회 찬양단원 대부분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악습을 끊고, 사회가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져야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사회의 변혁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세상에 소동을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때로는 악한 세력들이 반대하는 소동도 있지만 회개하는 소동도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를 통해 한국에 영적 소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일터에서도 놀라운 영적소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함으로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에 크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도행전적 역사가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 말씀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사회의 변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선교사가 보낸 편지



가브리엘, 소피아 선교사 부부
(아프리카D국)

긴 더위가 끝이 나고 날씨가 서늘해지기 시작했다. 더위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날도 없어졌다. 다행히 요즘은 조금씩 체중도 늘고, 체력도 회복하고 있다. 선교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범위가 변경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같이 활동하는 어느 선생님이 내게 조언했다.

“경험이 없는 신생단체에서 사업범위를 넓히면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 힘듭니다. 못한다고 하세요.”

주님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더군다나 주님이 친히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섬기라고 하신 데가 바로 이곳이다. 나는 목숨을 내

놓은들 아깝지 않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고백처럼 천 개의 목숨이 있어도 이들을 위해 줄 것이고, 만 개의 목숨이 있어도 줄 것이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가슴으로 아프리카D국 사람들을 사랑할 때 진정한 예수바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일상이 버거워 현지인들을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대할 때가 있었다. 긴 시간 주님 앞에 머물러 있지 못할 때도 많았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는데 내 죄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위로해 주셨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결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셨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든든하다.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가 있기에 고단한 하루를 행복함으로 마무리 할 수 있다.

길거리에서 아이를 데리고 구걸하는 엄마들을 만난다. 그 엄마들은 크게 두 부류다. 첫 번째는 농한기에 남편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도시에 보내 동냥을 하도록 권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종교, 중혼, 이혼과 관련된 무슬림의 관습으로 버려져 돌아갈 곳이 없는 경우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은 ‘해피마마 하우스’라는 비전을 주셨다. 돌아갈 곳이 없는 엄마들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주고, 자립할 때까지 쉼터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 사역을 누군가와 함께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여성들이 기술을 배워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아니타 사모님을 만났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프로젝트의 장소를 얻어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동안 집에서 해왔는데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로 돈을 모아 집을 지으려 한다는 계획도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버려진 여성들을 위한 그룹홈(Group Home)을 만들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이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계획이 분명하다.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모으면 비전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이 기대되고 가슴이 뛰다.

14 온누리신문

게시판

2016년 5월 1일(주일) | 제1097호

서빙고 O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손정훈 목사 시간: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김국종 팀장(010-8885-6757) S브릿지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010-3301-289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람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9:0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을 문의: 조승찬 팀장(010-2307-5547)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I, 2층 캄보디아 예배 10:0 안산M센터I, 4층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II, 3층 몽골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2층 네팔 예배 11:00 안산M센터II, 4층 열방 예배 09:00/11:30 안산M센터I, 1층 태국 예배 14:30 안산M센터II, 3층 스리랑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4층 베트남 예배 14:30 안산M센터I, 3층 필리핀 예배 15:00 안산M센터I, 4층 다문화꿈방예배 11:00 안산M센터I, 3층 다문화파워웨이브 11:00 안산 스타트리 서빙고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3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전 몽골어예배 14:20 인전 온누리교회 평택 몽골어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30~3: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10:30~12:30 -셔틀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재)온누리선교재단 식자재납품 계약 공지 작년 5월 29일 체결한 (재)온누리선교재단 과 삼성웰스토리(주)의 식자재납품계약이 기준과 동일하게 1년간 연장되었음을 알 려드립니다. 안산 온누리M센터 스타트리아카데미 교사봉사자 모집 과목: 한국어, 체육활동, 중등영어, 기타 등 기관: 스타트리아카데미 시간: 화~금 오후 2시~8시 장소: 안산역 도보 10분 문의: 조준기 총무교사(010-4444-2802) 마노아팀 국내 아웃리치 봉사자 모집 일시: 5월 15일 9시 30분 서빙고 출발 양재 9시 45분 경유 장소: 안산 글로벌 미션교회 모집대상: 의료인, 봉사자 문의: 송영주 팀장(010-3005-4787) 온누리 창조과학 선교팀 팀원 모집 창조과학 사역 참여 및 중보기도 대상: 창조과학스쿨 기본과정 수료자 일시: 매주일 오후 1~3시 장소: CGNTV 홍보관 문의: 010-3869-7785 마하나임팀 아웃리치 봉사자 모집 장소: 남부 교회 (종로구 창신동) 일시: 5월 20일(주일) 오후 2시 남부교회 사역내용: 의료, 미용, 한방, 수기 치료 등 모집대상: 의료인, 봉사자 (특히 산부인과 의사 필요) 문의: 권세윤 팀장(010-8898-3719) <생명의 삶> QT 무료 개관세미나 일시: 5월 16일(월, 15:00~17:00) 내용: 6월호 본문 (느헤미야서) 개관 대상: 생명의 삶 독자, QT 리더 등 강사: 이희성 교수 회비: 무료(준비물: 성경책, 필기구)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을 문의: 02-2078-3456 온누리교회 디자인실 간사 모집 지원자격: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등 담당업무: 온누리교회 관련 디자인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신앙고백 포함), 포트폴리오(jpg파일로 첨부) 전형방법: 서류전형 후 면접 근무요일: 화요일부터 주일 복리후생: 4대보험, 건강검진, 경조사지원 접수: jsunddi@onnuri.org *게시판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 재 O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3:0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 (총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 (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총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 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사랑부 교사 모집 문의: 조현배 총무(010-3342-9459)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셔틀운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2000선교 프랑스어예배 선교세미나 일시: 5월 9일~30일(매주 월) 오후 7:30 장소: 양재 비전홀A (지하 2층) 담당: 제라르 티네베 목사(통역 있음) 문의: 김기정 총무(010-3912-9393) 양재이천선교 스포츠선교팀 '제4회 온누리 열방 탁구대회' 일시: 6월 6일(월), 오전 9시~오후 6시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하용조기념홀 대상: 전 캠퍼스 온누리 등록교인 참가비: 개인 단식 1만, 단체 4만 접수: 1차: 16일 2차(최종): 30일까지 문의: 고길범 팀장(010-3772-3686) *캄보디아와 세네갈, 온누리파송선교지 에 탁구대 후원
---	---	---	---	---	--

부 천 O32.322.9686 주일예배 1부 오전7:00/2부오전9:00/3부오전11:30/4부오후 2:00/5부오후4:00(대청예배)/6부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30 3층 꿈아이를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11:30 3층 꿈아이를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수 원 O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5부 오후 4: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19:40 본당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 전 O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시 본당 / 4부 오후 4시 본당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O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0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 주중예배 온누리미션예배(인도,네팔) 매주 주일 오후 7:30 사이닝글로리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소년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시30분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09시00분 기쁨홀	평 택 O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주중예배 수요여성예배 수 오전 10:30 본당 수요온누리워십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지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9:00 파워웨이브교육관	인 천 O32.437.9686 주일성인예배 1부 오전 9시 컨벤시아 1층 113-115호 2부 오전 11시 컨벤시아 1층 113-115호 3부 오후 1시 컨벤시아 1층 113-115호 Web대학청년 오후 2시 프리스페이스 6층 차세대예배 -컨벤시아(오전11시) 영아부 102호 / 유치부 110호 유년부 107호 / 초등부 104호 -프리스페이스 6층 중등부 오전 11시 / 고등부 오전 9시 사랑부예배(장애우) 오전 11시 컨벤시아 1층 104호 주일국제예배 해문교(조선어)영어예배 오후 1시 컨벤시아 1층 103호 몽골어예배 오전 11시 스마트밸리 수요오전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프리스페이스 6층 수요부흥예배 매주 수 저녁 7:40 프리스페이스 6층	강 동 O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지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지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 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양 지 O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9:00 / 2층 김사무엘홀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영아/ 11:00 / 3층 주선애홀 (영성중계) 예수님의 꿈아이(유아,유치)/ 11:00/지하1층 무어홀 꿈이지라는 땅(유년) / 11:0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지라는 땅(초등) / 11:00 / 지하1층 길보론홀 파워웨이브 / 11:0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수요선교예배 / 19:20 / 1층 시안홀
---	--	--	---	--	--	---	---

Onnuri온누리교회

http://onnuri.or.kr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박형준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3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박태영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국토농빌딩 3-6층

• 남양주 안광국 목사 (031) 565-9686-8 (대표) 471-85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3-5층

• 평택 김종민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26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38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13

• 강동 최원준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기도처

• 태안온누리 송영동 목사 070-9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송영동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콤온누리 추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곶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권혁빈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종업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금경연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창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이훈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940-1900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Marc Choi 목사 1-212-427-2055 316 East 91st St, New York, NY 10128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6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한규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오세아니아

• 시드니 김철진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alia

• 오클랜드 유현록 목사 64-21-0810-3132 7 Tam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동경 문봉주 목사 81-3-6658-1530 (130-0012)Tokyo Onnuri Vision Church Saisei Kinsicho Bldg, 3F, 8-11, 2Chome Taihei, Sumita-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원성 목사 81-6-6121-2015 Naniwa 3F 1-3-19Higashisinsaiiba Chuoku

Osakasi Japan 542-0083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Nagano-ken Ueda-shi Oaza Sur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서현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김철희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O 2F

• 교토 아미나카 토모요시 목사 81-75-748-9303 Saiin Pram Bld 6F, Sanjochi 14, Saiin Woolyoku, kyoto japan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2-665-7754 opposit embassy of Viet Nam, 23rd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김영철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베이징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 (内大地

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 • 단둥 김대진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53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 526路 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민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anghaishi Minhangqu Caobao lu 1243hao yongweishangwudasha 3lou 388shi • 장쑤 박시형 목사 86-158-0431-5714 中国 吉林省 长春市 南关区 永长路 213号 onnuri. zhongguo jilinsheng changchunshi nanguanqu yongchanglu 213hao onnuri. • 청도 최송구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목목사(전임)

김미향	강승운	강일영	강일하
권오환	권영갑	김경훈	김관수
김도규	김도윤	김상수	김성욱
김성원	김소리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영진	김영창
김요성	김유식	김재석	김정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아	김찬호
김대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혜태	럼문홍	마이코리
문영재	박대원	박성은A	박성은B
박성현	박세웅	박승재	박승훈
박윤현	박철웅	석승호	성종원
손신아	손정훈	송영동	신동식
스티브	양성민	양재철	여성민
오민	오은규	유윤상	원유경
유수열	유영순	윤경숙	윤길중
유석관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동훈	이시연	이시연
이상진	이서진	이성민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임한재	이현진	전신익	전재표
전홍진	전현규	정상훈	정성훈
정용규	정재복	정재호	정형석
정현규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차명관	최성민	최성석	최영민
최용준	최형준	채기석	한화수
홍기완	허원희	황재범	황종연
황준서	황재범		

◆전도사(전임)

◆경배와찬양

◆협력목사

◆부목사(파트)

◆전도사(파트)

◆전도사(파트)

◆전도사(파트)

◆전도사(파트)

◆전도사(파트)

◆전도사(파트)

◆전도사(파트)

◆전도사(파트)

◆전도사(파트)

◆전도사(파트)

◆전도사(파트)

◆전도사(파트)

◆전도사(파트)

◆전도사(파트)

◆전도사(파트)

◆전도사(파트)

전우정

정구현

정민희

김명현

김명훈

김민호

김병순

이우근

이은일

이인용

이정로

박정규

송정희

서동희

신수정

◆전도사

강성근

강찬호

강창환

강대준

김성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전우정

정구현

정민희

김명현

김명훈

김민호

김병순

이우근

이은일

이인용

이정로

박정규

송정희

서동희

신수정

◆전도사

강성근

강찬호

강창환

강대준

김성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전우정

정구현

정민희

김명현

김명훈

김민호

김병순

이우근

이은일

이인용

이정로

박정규

송정희

서동희

신수정

◆전도사

강성근

강찬호

강창환

강대준

김성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전우정

정구현

정민희

김명현

김명훈

김민호

김병순

이우근

이은일

이인용

이정로

박정규

송정희

서동희

신수정

◆전도사

강성근

강찬호

강창환

강대준

김성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전우정

정구현

정민희

김명현

김명훈

김민호

김병순

이우근

이은일

이인용

이정로

박정규

송정희

서동희

신수정

◆전도사

강성근

강찬호

강창환

강대준

김성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THE KNOCKERS

영상 콘텐츠 공모전

주제 기독교 메시지가 담긴 자유 주제

형식 미니다큐, 뮤직비디오, 웹드라마 등 자유형식

자격 남녀노소 누구든 가능 / 중복 가능 / 개인 및 단체 참여 가능

일정 5월 31일 접수마감 / 6월 10일 발표

제출 pepelepu@naver.com

문의 02-3275-9526



자세한 정보는 **Facebook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방송일자 5월 5일(목) 오전 11시 30분



남매 듀오 **‘악동문지선’**의 부모인
이성근, 주세희 선교사 부부의
행복한 자녀 양육법

Tv 프로그램



▷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5/2(월) 오전 11시 30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티스트 박효빈과 농촌 교회에 헌신한 김수영 목사의 거제대교회 이야기입니다.



▷ 나침반 바이블
-5/5(목) 오전 11시 조병호 목사
〈하나님 마음〉
-5/6(금) 오전 11시 이한영 교수
〈광야에서의 실패〉



▷ 토크콘서트 힐링유
-5/6(금) 오후 10시 40분
한국 최고의 디바 소향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힐링유>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채널안내

IPTV
olleh G 채널237
SK Btv 채널554
LG U+ 채널183
 케이블TV
C&M 채널703
CJ 헬로비전 채널702
 시청문의
 02-796-1118

주 | 간 | 편 | 성 | 표

5/1(주일)	5/2(월)	5/3(화)	5/4(수)	5/5(목)	5/6(금)	5/7(토)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0:3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13:00 생명의 삶 13:20 어린이예배 15:2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16:00 영어예배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8:20 토크콘서트 힐링유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1:00 지구촌 반상회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마가 복음강해(영어자막)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13: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5:30 CGN 북세미나 책걸음 16:50 전선 프랭클린의 부흥 18:50 [말씀]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20: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21:00 [말씀] 김병삼 목사 (만나교회)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 유집회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3:5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14:50 [말씀] 권혁빈 목사 (앨버틴온누리교회) 16:50 [컨퍼런스] 언어의 축복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8:50 [말씀] 진재혁 목사 (지구촌교회) 21:00 하용조 목사의 십자가 묵상(영어자막) 21:4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함에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0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 14:1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5:30 마이클 프로스트의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 16: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50 힐송처치 메시지 17: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8:5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20:10 CGN 북세미나 책걸음 23:2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김창근 목사 (무학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3:10 [말씀]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16:50 신학자들의 토크테이블 18:50 [말씀]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20:10 최은영 교수의 성장 21:0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4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십자가 묵상(영어자막)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지구촌 반상회 13:10 [말씀] 마크희 목사 (뉴욕IN2) 15:30 이계호 교수의 태초먹거리 17: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8:50 [말씀] 박완철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20:10 마이클 프로스트의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 21:40 CGN 비전특강 22:40 토크콘서트 힐링유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웰드리포트 07:00 [말씀] 조봉희 목사 (지구촌교회) 08:50 조셉 프린스의 은혜 10:3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13:10 [말씀]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14:50 [말씀] 김병삼 목사 (만나교회) 15:30 나침반 바이블 16:30 최은영 교수의 성장 19:00 마이클 프로스트의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 21:2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23:0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함에

CGNTV 정기후원 [573-910002-67804 하나은행] 문의: 02-796-2243, ARS후원: 060-700-1660
 페이스북(facebook.com/cgntv) / 유튜브(youtube.com/globalcgn) / 홈페이지(www.cgntv.net)

CGNTV 중보기도
모임(드림온맘)에
초대합니다!!

■ 서빙고 월요탐: 첫째,셋째 월요일 오후 2시 / 금요탐: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양재탐: 둘째주 목요일 오전 10시 ■ 남양주탐: 금요일 오후 2시
 ■ 수원탐: 금요일 오전 10시
 ■ 문의: 후원관리팀 3275-9304